청정 완도 섬 여행하며 지친 심신 치유하세요

25~27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서 '가을 섬 여행' 프로그램
해양치유·맨발걷기·청산도 은하수투어·콘서트·버스킹 공연

완도군의 '2024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프로그램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국화 전시회와 해양치유·맨발걷기 체험, 청산도 은하수투어,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5일부터 11월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국화전시회에는 3만 본의 국화가 선보인다.

해양치유 체험은 모래테라피, 머드랩핑, 해변요가·명상·노르딕 워킹 등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는 25~26일 '어썸 블루 치유 콘서트'가 열린다.

야간에는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해양치유 야시장'을 열어 완도 특산물과 요리,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완도군 해양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맨발걷기 페스티벌'은 26일 황톳길과 해변 모랫길을 여유롭게 걸으며 가을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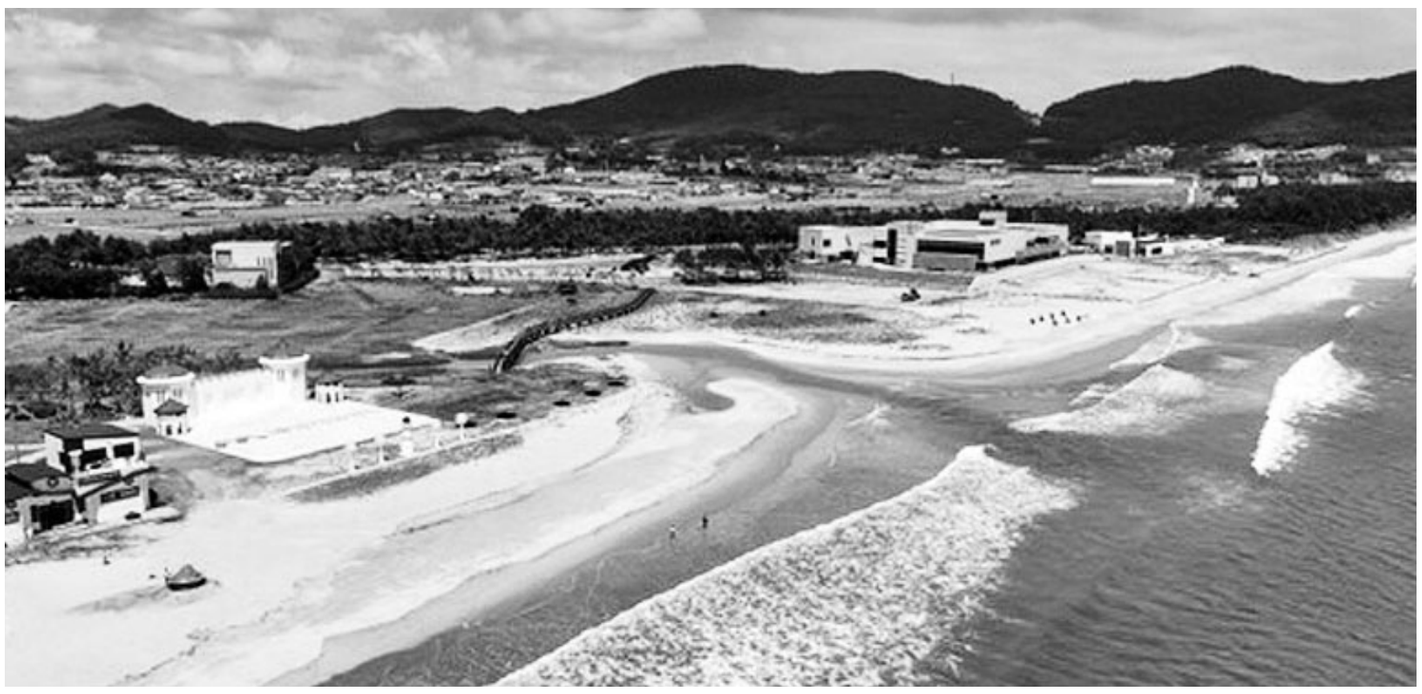
'청산도 은하수 투어'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의 밤하늘을 사진 촬영하며 추억까지 담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인생샷' 오픈톡방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에서는 각 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스탬프 투어'로 구성해 인증 시 완도의 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서는 26일 치유 체험과 함께 '치유 숲캉스 버스킹'이 열린다.

완도읍에서는 부꾸지에서 출발해 해안숲길을 따라 구계등까지 돌아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남파랑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정취와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해양치유센터 전경.

무안군, 26일~11월 15일 '뻘낙지거리 방문의 달' 운영

다양한 이벤트·체험행사

무안군은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안뻘낙지거리 방문의 달'을 운영한다.

2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무안갯벌낙지축제와 연계해 행운의 돌림판 이벤트, 남도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낙지호롱 쿠킹클래스를 선보이고 만원대 신메뉴 판매 음식점 21곳도 문을 연다.

무안뻘낙지거리 음식점 낙지요리메뉴 선호도 조사, 식중독 예방 및 보건사업 홍보관 운영, 낙지와 함께하는 무안의 추억 포토존 등도 마련했다.

무안뻘낙지 활용 1만원대 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뻘낙지 삼겹살볶음', 낙지와 달콤 짭짤한 육즙이 풍부한 '뻘낙지 떡갈비' 등을 21개 음식점에서 판매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뻘낙지거리 방문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 체험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시 오고 싶은 으뜸 음식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무안 뻘낙지거리 전경.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 기념우표 발행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기념우표.

장군바위(큰바위얼굴)와 마애여래좌상 등 월출산의 수려한 풍경, 월출산 남생이와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등 전국 국립공원의 깃대종이 담긴 한정판 기념우표가 출시된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11월 1~3일 영암군이 개최하는 '2024 영암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기념우표는 '월출산의 풍경', '국립공원 깃대종' 총 2종이다.

영암의 풍경은 월출산의 사계와 문화자원 사진, 영암군 캐릭터 3종이 담긴 우표 14개로 구성돼 있다.

국립공원 깃대종은 전국 14개 국립공원의 깃대종 동물 14종의 그림으로 우표로 제작했다.

기념우표는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장의 영암굿즈샵과 영암문화관광재단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임혜섭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TF팀장은 "이번 우표는 국내 첫 국립공원박람회를 기념하는 한정판으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전국 우표 수집가들이 영암에 방문해 박람회도 구경하고, 희귀 우표도 수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영암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는 '월출산, 달빛 넘나들이'를 주제로 공원문화, 기획, 전시, 체험, 부대.판매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전국 23개 국립공원이 총출동하는 전시·홍보·체험존은 한자리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등학생이 박람회장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월출레인저', 열기구를 타보는 이색체험 '월출산 스카이 벌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해남군이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군-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했다.

지역 철새도래지 3개 구간, 5개 지점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60여개의 장소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및 군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게 된다. 해남군은 거점소독시설(해남읍 용머리길 14-37)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종오리 농장 및 철새도래지 등에 통제초소도 6개소를 설치·운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질병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김희수 진도군수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들이 군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도군 각계 전문가 13명 미래전략위 출범

진도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미래전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는 관광·문화, 행정, 기획·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진도군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자문, 군정 주요 현안 과제의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협력한다.

또 지난 2년간 확보한 106건(2392억원)의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는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호남고속철도 노선 진도 연장 등 14건의 진도군 주요 현안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등 8건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완도군 내일부터 2주간 섬 여객선 요금 반값

5개 항로 추가 예산 확보

완도군이 23일부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하 '반값 여객선 운임제')을 시행한다.

완도-청산, 화흥포-소안, 땅끝-산양, 땅끝-넙도, 완도-여서 등 5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 기간을 맞아 청산도, 소안도, 노화도, 여서도, 노화(넙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완도군민 제외)에게 여객 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화흥포)에서 소안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기존 7천700원에서 3천85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이 운임제는 관광객 방문 증가로 사업이 조기 마감됐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 23일부터 약 2주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마감된다.

올해 초 관광객 7만7000명이 반값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이 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섬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경찰, 삼호읍 외국인 전용 업소 마약 단속

영암경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을 마약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전용 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15일 경찰과 영암군청 직원 등으로 단속반 3개 팀을 구성, 지역 유흥주점 등 6개 업소를 방문해 합동단속〈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손전등을 통해 화장실 쓰레기통, 벽 뒤 등 구석구석 확인하며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평온한 영암군을 위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업소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문화유산 야행' 사흘 일정 성료

'명창을 만나다' 등 50여 프로그램

목포시는 지난 18일부터 3일동안 '100년의 시간여행, 목포의 밤을 거닐다'란 부제로 열린 '2024 목포 문화유산 야행'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야(夜)를 테마로 달빛으로 물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을 배경으로 5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박방금.안부덕과 제자들의 하모니 '명창을 만나다', 1980년대 서민들의 애환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김시라 품바-날개없는 천사' 연극공연, 목포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등 예향의 도시 목포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공연들로 구성됐다.

경동성당에서는 '목포 근대 재즈콘서트',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춤과 재즈가 어우러진 '스윙재즈' 공연 등이 진행되며 빛으로 채색된 경동성과 어우러져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했다.

옛목포공립심상소학교강당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옥(玉)장 장주원선생의 해설이 있는 옥공예 시연과 전시하고, 야외 무대에서는 '인형극 북촌사람들', 태권도 시범, 하모니카 연주와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야행에서는 성옥 이훈동선생이 수집한 근·현대 작품과 고미술작품, 도자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성옥기념관을 18~19일 이틀간 연장 개방하고, 전우용의 근대역사 토크콘서트와 목포의 청년들로 구성된 '브리앙트' 공연도 진행됐다.

특히 목포시에서는 '문화유산에서 즐기는 피크닉 체험 공간을 구성해 영화 감상을 하며 가족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근대역사거리 일원에서는 근대복, 물지게, 물펌프, 인력거, 전통 놀이 체험과 연령대별 다양한 한복을 무료 체험 기회로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4 목포 문화유산 야행은 근대역사1번지 목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 목포를 찾아 목포의 맛과 멋, 낭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